

師範大學生의 學業適應度 調査

李 杺 杙*

목 차

- | | |
|------------|------------|
| 1. 연구의 목적 | 5. 자료의 분석 |
| 2. 연구의 제한점 | 6. 요약 및 결론 |
| 3.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4. 연구의 방법 | |

1. 연구의 목적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절히 적응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학생이 학교의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적절히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한 것은 모두 적응에 관련된 일들이다. 적응은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을 의미한다(강선보의 1988 : 5).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행위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적응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적응도(scholastic adjustment)란 학습자의 목표행위가 학교 사회와 조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研究의 目的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각 교과 영역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 부적응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표집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밝혀진 현상은 그만큼 제한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Likert형 척도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학습능력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것이므로 직접 관찰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조사연구는 일회의 측정에 의해 얻은 자료이므로 재학생의 완전한 학업적응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여러번의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얻어진 자료가 아니므로 재측정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3. 이론적 배경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학습습관,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이 학업적응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은정 1992 : 87~95).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 평가와 같은 여러가지 자기평가적 개념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 및 지속과 관련이 있음도 밝히고 있다.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학습습관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학업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Elliot, et. al. 1990: 203 ~ 207).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세계를 알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항상 그의 환경 내의 사물과 사건들에 대해 알고자 애쓰며, 이러한 앎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거나 자신의 생활에서 안정감을 잃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욕구는 곧 학습동기의 원천이 된다. 학업성취도(scholarstic achievement)는 학교 교과들에서 획득되거나 개발된 지식 및 기능들로서 일반적으로 교사에 의해 처리된 시험성적, 혹은 등위 등을 일컫는 말이다(Good 1973: 7). 학업성취도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환경적 요인(가정환경, 학급 및 학교환경, 사회 및 문화적 배경 등)·학습자 요인(지능, 성격, 동기 등)·학습자체에 관련된 요인(선행학습, 학습전략)·교수에 관련된 요인(교수매체와 방법, 평가체제와 방법, 교재의 체제와 방법, 교사특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학업성취도는 주로 학습에 의하여 획득된 결과이다. 학습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계획적, 의도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학교 풍토에 의해서 무의도적으로 습득되는 결과 등도 포함된다. 학습은 직접, 간접의 경험이나 훈련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간주되며, 질병이나 피로 또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신체 상태의 변화는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수원의 1996: 125).

이종승(1981: 117)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자신의 학습행동이다. 그리고 아동의 학습행동은 아동 자신이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과 가정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좌우된다. 아동의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학습행동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비교적 크다고 보았다. 아동의 학업성취와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물리적 및 심리적 가정환경의 변인들은 대개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학습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학습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모교육수준은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조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습행동이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아동의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된다.

知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도 자주 언급된다. 지능과 학업성적간의 상관은 대체로 .45 정도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난 상관계수의 값만으로 이러한 가정을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심도있는 관찰에 의해 지능은 낮지만 비교적 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반대로 지능을 높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러한 가정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한다(Gage & Berliner 1984). 이와 같은 허구적 상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학습과진(overachievement)과 학습부진(underachievement)이라는 개념이 활용된다. 이 개념은 우리가 지능은 같지만 학업성취도가 다른 학생들을 재고해 보도록 한다.

학업성취도에 지능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動機이다. Ringness(1965: 600~606)는 IQ수준이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는 IQ가 120 이상이면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0명의 정상성취집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IQ, 성, 연령, 학교 및 학업부담이 정상성취집단과 같지만 평균평점이 2.0 이하인 학생 30명의 학습부진 집단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가지 검사와 면접을 통하여 두 집단의 동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이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

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습부진과 학습과진이라는 개념에는 지능보다는 학업적인 성취동기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創意性和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서 조정기(1989: 109)의 보고서는 양자간에 정적 상관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수용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남학생은 양변 인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상관계수는 매우 낮은 값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은 자연이나 산수과목보다 음악·미술·체육 등의 과목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한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들도 교실에서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 과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우수한 학업성취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이루어지며, 학력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등급화되는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동료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긴장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규혁 1996: 297).

학업성취에서의 계속적인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킨다(Bloom 1967). 따라서 학습과제에 대한 적절 혹은 부적절의 경험이 누적될 경우 그 학생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결국, 지속적인 학업성취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의 누적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두 요인의 관계를 일반화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그 중 Stringer와 Glidewell(1967)이 초등학교 2~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적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의 중후군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임규혁(1991)의 고교생에 대한 학업성취의 누적적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고등학생 중 약 절반정도의 학생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자연계열 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박증 불안 요인은 1, 2학년 보다는 대학입시에 임박한 3학년 학생들이 보다 심한 상태를 보였다. 둘째, 고등학생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에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2, 3학년 모두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보다 우울증·강박증·불안 등이 심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누적적 경험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을 때 정신건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성공적이지 못하였을 때에는 건강하

지 못한 정신상태를 보였다.

학습과제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 소모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지나친 포부 수준의 설정, 과다한 학습량, 능력을 초월하는 과제, 외부의 지나친 기대 등은 모두 학습자를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압도되어버린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 그 결과는 현실도피, 약물중독, 음주, 흡연 등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여 자신의 생애계획을 의미있게 실현하도록 학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조사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회조사 방법론은 탐구 변인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에 입각하여 척도를 제작하며, 또한 이 척도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응성이란 ‘학습자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7개 영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업부적응자에 관한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학업적응도를 역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학업 실패 경험의 원인 및 그 분포를 밝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이다. 사범대학의 표집 분포는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표집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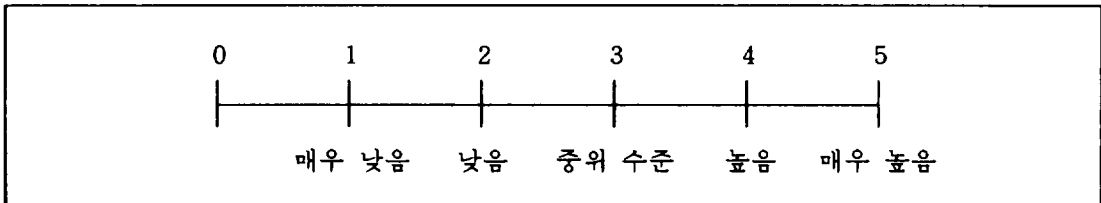
학 과 \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국 어 교 육 과	16(18)	17(20)	18(21)
영 어 교 육 과	15(17)	17(19)	14(18)
사 회 교 육 과	20(25)	12(18)	19(24)
국민윤리교육과	15(14)	13(13)	12(15)
상 업 교 육 과	13(17)	15(15)	13(14)
수 학 교 육 과	13(18)	9(14)	7(11)
고 학 교 육 과	22(24)	16(17)	15(20)
컴퓨터교육과	12(20)	19	17

* ()은 재학생 숫자임

척도는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수는 49개 이다.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양필수과목에 관한 7개 문항
- ② 계열기초과목에 관한 7개 문항
- ③ 학문관심과목에 관한 7개 문항
- ④ 학과전공과목에 관한 7개 문항
- ⑤ 전공교과교육에 관한 7개 문항
- ⑥ 교직과목에 관한 7개 문항
- ⑦ 소속학과에 관한 7개 문항

<그림 3-1> 척도치의 판별



학업적응도는 위에 언급한 7개 영역을 Likert형으로 제작된 척도로 측정한 값으로 가치의 경중을 판단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즉 각 영역의 평균치들은 <그림 3-1>과 같은 5점 척도상 일정한 위치를 지시하도록 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판별적 언어는 다음과 같다

- 1.00~1.05 : 매우 낮음
- 1.06~2.05 : 낮음
- 2.06~3.05 : 중위 수준
- 3.06~4.05 : 높음
- 4.06~ : 매우 높음

5. 자료의 분석

가. 국어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1.-1>은 국어교육과 1, 2, 3학년의 각 교과영역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연

구에서 활용된 척도는 Likert형 5점척으로서 '1'에 접근할수록 적응도가 낮은 반면 적응도가 높을수록 5점에 접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3점은 본 척도의 중위점수대이다.

<표 1-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16)		2학년(n=17)		3학년(n=18)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21	3.25	0.45	3.46	0.19	3.79
계열기초		0.08	2.91	0.78	3.01	0.42	3.18
학문관심		0.37	2.26	0.53	2.82	0.18	3.43
학과전공				0.89	2.98	0.23	2.85
교과교육				0.61	2.65	0.58	2.37
교직과목				0.55	2.52	0.73	2.78

국어교육과에 있어서 교양필수와 계열기초에서는 1학년에서부터 중위점수를 넘어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문관심영역도 1학년에서는 부적용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2, 3학년에서는 적응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과의 전공영역, 교과교육 및 교직과목영역 등에서는 부적용 상태에 머물고 있다.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1-2>는 학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업 실패자의 대부분은 그 원인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과 노력 부족을 들고 있다. 1학년의 경우 실패자가 공부하지 않는 동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반응문항	학년	1학년(n=16)	2학년(n=17)	3학년(n=18)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2	1
자신의 노력부족	1	2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 타	0	0	0	

국어교육과에 있어서 학업실패 원인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습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문제해결 능력이 신장된데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표 1-3>은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체적인 경향은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가폭은 아주 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년	1학년(n=16)		2학년(n=17)		3학년(n=18)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24	2.89	0.31	3.24	0.31	3.07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31	2.56	0.70	2.87	0.25	2.99
학과 선택을 잘했다		0.07	2.20	0.34	3.19	0.15	3.14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35	2.38	0.82	3.33	0.22	3.38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21	2.55	0.52	2.17	0.36	3.59
대학생활이 즐겁다		0.46	2.67	0.23	2.25	0.55	2.78

1학년의 경우 대부분 부적응 상태에 있으며 2학년은 ‘학과 운영방식’ 및 ‘대학생활이 즐겁다’ 등의 유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활이 즐겁다’는 유목에 대한 반응은 1, 2, 3학년 공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대체로 중위점수를 넘어 긍정적인 경향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영어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2-1>은 영어교육과의 각 교과영역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4개 영역 중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과전공 등에서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학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즉, 영어교육과 재학생들은 1, 2학년에 걸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15)		2학년(n=17)		3학년(n=14)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16	2.64	0.25	2.17	0.23	3.28
계열기초		0.28	2.48	0.13	2.61	0.21	3.71
학문관심		0.35	3.33	0.37	2.56	0.28	3.60
학과전공				0.28	2.95	0.26	3.39
교과교육				0.39	2.71	0.54	3.33
교직과목				0.75	2.33	0.73	3.61

그러나 3학년에서 이러한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3학년의 경우 재학생은 대부분의 교과영역에서 안정된 적응상태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2-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 인	학 년		
	1학년(n=15)	2학년(n=17)	3학년(n=14)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2	1	1
자신의 노력부족	1	2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 타	0	0	0

<표 2-1>은 교과 이수 중 실패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그 원인 유목에 반응하도록 한 결과이다. 학업 실패 경험이 있는 학생은 1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상급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실패 경험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학년의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과 '자신의 노력부족' 등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실패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의 재학기간이 축적됨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도 아울러 신장된 결과로 보인다. 대체로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학업 실패원인을 외부보다는 자신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3) 소속학과에 대한 태도

<표 2-3>은 영어교육과에 대한 재학생의 적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학년은 자신의 학과에 대해 부적응적인 상태에서 1학년을 시작하지만 상급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자신있는 반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표 2-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1학년		2학년		3학년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08	2.25	0.23	3.03	0.31	3.07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13	2.31	0.29	2.78	0.25	2.99
학과 선택을 잘했다	0.25	2.28	0.41	3.26	0.15	3.14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33	2.20	0.22	3.41	0.22	3.58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12	2.29	0.07	3.35	0.36	3.79
대학생활이 즐겁다	0.48	2.33	0.25	3.19	0.21	3.54

2, 3학년의 경우 대부분이 중립점수를 넘어 적응지향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는 유목에 1, 2, 3년 모두 부적응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이는 영어라는 특수한 학문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데서 오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 사회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3-1>은 사회교육과 재학생의 각 교과영역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 계열기초 등 4개 영역에서 적응도의 중간점인 3점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과 재학생들은 상급학년에 올라갈수록 각 교과영역에서의 적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교육과 재학생은 각 교과영역의 학습활동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1학년(n=20)		2학년(n=12)		3학년(n=19)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68	2.71	0.52	2.85	0.38	3.41
계열기초	0.59	2.96	0.98	2.83	0.25	3.66
학문관심	0.37	2.89	0.72	3.25	0.57	3.66
학과전공			0.12	3.06	1.26	3.87
교과교육			0.23	2.96	0.43	3.82
교직과목			0.56	3.17	0.77	3.54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3-2>는 사회교육과 재학생 중 학업 실패경험이 있는 학생의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는 앞의 두 과(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에 비해 학업실패 경험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인	1학년(n=20)	2학년(n=12)	3학년(n=19)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1	1	0
자신의 노력부족	2	1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0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 타	0	0	0

사회교육과에서 학업 실패경험자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부족' 및 '자신의 노력부족' 등 자신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3학년에서는 타 학과에 비교하여 학업 실패경험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표 3-3>은 사회교육과 재학생의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에서 부적응 상태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과의 경우에는 자기 학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자신감이 1학년에서부터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표 3-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년	1학년(n=20)		2학년(n=12)		3학년(n=19)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21	3.23	0.33	3.33	0.15	3.25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1.13	3.17	0.23	3.26	0.20	3.41
학과 선택을 잘했다		0.52	3.20	0.45	3.21	0.91	3.85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29	3.05	0.28	3.18	0.24	3.67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21	2.91	0.27	3.23	0.34	3.79
대학생활이 즐겁다		0.18	2.78	0.31	3.47	0.22	3.85

사회교육과의 경우 '학과 선택을 잘했다,'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교육과 재학생은 대체로 학과 관리방식에 만족하고 있으며 적응의 정도는 긍정적인 면이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국민윤리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4-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15)		2학년(n=13)		3학년(n=12)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28	2.70	0.29	2.82	0.06	2.98
계열기초		0.45	2.83	0.32	2.70	0.34	2.68
학문관심		0.37	3.10	0.46	3.54	0.71	3.13
학과전공				0.38	2.95	0.46	3.89
교과교육				0.33	2.62	0.82	2.82
교직과목				0.27	2.72	0.65	2.69

<표 4-1>은 국민윤리교육과 재학생의 교과영역별에 따른 학업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체적인 경향은 1, 2학년에서는 '학문관심'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3학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3학년의 경우 '학문관심' 영역과 '학과 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적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4-2>는 국민윤리교육과 재학생의 학업적응 실패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2명이 '자신의 노력부족'을, 그리고 1명이 '기타'를 실패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실패경험은 감소하고 있다.

<표 4-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 인	학 년	1학년(n=15)	2학년(n=13)	3학년(n=12)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0	1
자신의 노력부족		2	1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0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 타		1	0	0

대체적으로 국민윤리교육과 재학생은 학업 실패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열심히 노력하면 높은 학업성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소속학과에 대한 태도

<표 4-3>은 국민윤리교육과 재학생의 학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2학년에서 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는 유목의 제외한 대부분의 유목에서 중위점수를 넘고 있다.

<표 4-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 년	1학년(n=15)		2학년(n=13)		3학년(n=12)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46	2.67	0.40	3.04	0.24	3.07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71	2.89	0.31	3.11	0.16	3.10
학과 선택을 잘했다		0.22	2.65	0.42	3.29	0.83	3.38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38	2.44	0.26	3.32	0.51	3.71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26	2.83	0.71	2.78	0.74	2.95
대학생활이 즐겁다		0.48	2.75	0.33	2.93	0.33	3.58

3학년 역시 2학년과 유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3학년에서 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중위수준을 지나 높은 적응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 상업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5-1>은 상업교육과 재학생의 각 교과영역별 학업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학업적응도는 대체로 '낮음'의 수준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2학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5-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13)		2학년(n=15)		3학년(n=13)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17	2.60	0.24	2.79	0.26	2.95
계열기초		0.25	2.73	0.37	2.58	0.19	2.83
학문관심		0.26	2.89	0.25	3.18	0.23	3.16
학과전공				0.20	2.73	0.37	3.82
교과교육				0.27	2.84	0.22	2.85
교직과목				0.33	3.06	0.61	2.91

3학년의 경우 '학문관심' 영역과 '학과 전공'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도 중위점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각 교과별 학업 적응도는 낮은 수준에 있으나, 본 연구는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5-2>는 상업교육과 재학생 중 학업 실패를 경험한 학생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학업 실패경험자는 3명이며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 '자신의 노력부족' 및 '기타' 등 각각 1명씩이 해당 유목에 반응하였다.

<표 5-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인	학년	1학년(n=13)	2학년(n=15)	3학년(n=13)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1	1
자신의 노력부족		1	2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0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타		1	0	0

2학년의 학업 실패자 반응분포는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에 1명, '자신의 노력부족'에 2명이다. 3학년의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 및 '자신의 노력부족' 등에 각각 1명씩으로 상업교육과의 학업실패자는 학년에 따라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표 5-3>은 상업교육과 재학생의 소속학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은 대체로 낮은 적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학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5-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년	1학년(n=13)		2학년(n=15)		3학년(n=13)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33	2.52	0.23	2.85	0.13	2.80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25	2.44	0.18	2.71	0.24	2.69
학과 선택을 잘했다		0.36	2.51	0.36	2.35	0.36	2.46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27	2.57	0.24	2.77	0.21	3.35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21	2.45	0.72	2.83	0.37	2.81
대학생활이 즐겁다		0.35	2.68	0.23	2.96	2.96	3.38

3학년의 경우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는 유목과 '대학생활이 즐겁다'는 유목만이 척도의 중위수준을 넘어 적응쪽의 점수로 기울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유목은 여전히 낮은 적응점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학문적 접근을 해야하는 상업교육과의 학과적 특수성이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바. 수학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6-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13)		2학년(n=9)		3학년(n=7)	
		S	\bar{X}	S	\bar{X}	S	\bar{X}
교 양 필 수		0.34	2.43	0.23	2.37	0.26	2.95
계 열 기 초		0.12	2.37	0.44	2.45	0.19	2.83
학 문 관 심		0.26	2.55	0.19	2.31	0.23	3.16
학 과 전 공				0.95	2.25	0.37	3.82
교 과 교 육				0.72	2.63	0.22	2.85
교 직 과 목				0.65	2.59	0.61	2.71

<표 6-1>은 각 교과영역별에 따른 수학교육과 재학생의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전 교과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적응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학년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3학년의 경우 ‘학문관심’ 영역과 ‘학과 전공’은 적응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적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많은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요구하는 수학이라는 학문적 성격이 재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6-2>는 수학교육과 재학생의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를 제시한 결과이다. 수학교육과 재학생은 대체적으로 학업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과 ‘자신의 노력 부족’ 등 내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6-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 인 \ 학 년	1학년(n=13)	2학년(n=9)	3학년(n=7)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2	2	2
자신의 노력부족	1	2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0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 타	0	0	0

특이한 현상은 수학교육과의 경우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가 다른 학과와 반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실패경험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학교육과에서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실패경험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표 6-3>은 수학교육과 재학생의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체적인 경향은 ‘낮은 적응도’를 각 학년에서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각 교과영역에서의 부담이 학과의 적응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느낌을 준다.

3학년의 경우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와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부분의 다른 유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수학교육과의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6-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년	1학년(n=13)		2학년(n=9)		3학년(n=7)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79	2.54	0.57	2.41	0.13	2.80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43	2.38	0.69	2.56	0.24	2.69
학과 선택을 잘했다		1.17	2.25	0.68	2.33	0.36	2.46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84	2.39	0.79	2.41	0.21	3.35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97	2.36	0.68	2.28	0.37	3.81
대학생활이 즐겁다		0.33	2.67	0.45	2.85	0.29	2.64

사. 과학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7-1>은 과학교육과 재학생의 각 교과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 등에서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2학년에서 태도가 바뀐 영역은 '학문관심' 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학교육과와 유사하다.

<표 7-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22)		2학년(n=16)		3학년(n=15)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61	2.92	0.31	2.84	0.44	3.13
계열기초		0.25	2.54	0.54	2.65	0.25	3.02
학문관심		0.34	2.77	0.28	3.08	0.19	3.07
학과전공				0.35	2.96	0.51	2.97
교과교육				0.63	2.61	0.68	2.93
교직과목				0.51	2.81	0.73	2.30

그러나 3학년의 경우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등에서 부적응으로부터 적응으로 태도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처음에는 경험부족으로 인한 부적응이 지배적이었으나 상급학년이 되면서 문제해결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7-2>는 과학교육과 재학생의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를 조사한 결과이다. 실패경험자 분포는 수학교육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과 '자신의 노력부족' 등 실패원인을 자신에게 국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 인	학 년	1학년(n=13)	2학년(n=15)	3학년(n=13)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1	1
자신의 노력부족		1	2	1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		0	0	0
교수의 능력부족		0	0	0
기 타		0	1	0

학업 실패경험자 수는 2학년이 다른 학년의 두 배가 된다. 이는 전공 분야와 교직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2학년이기 때문에 자연히 실패자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른 학과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표 7-3>은 과학교육과 재학생의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학년에서 역시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적응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표 7-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 년	1학년(n=13)		2학년(n=15)		3학년(n=13)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65	2.69	0.51	2.98	0.72	2.71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78	2.45	0.38	2.61	0.38	2.69
학과 선택을 잘했다		1.59	2.31	0.49	2.54	0.81	2.82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47	2.37	0.32	2.33	0.64	3.53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81	3.47	0.44	3.10	0.26	3.16
대학생활이 즐겁다		0.57	2.39	0.65	2.46	0.37	2.33

3학년의 경우에도 대체로 부적응적 반응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와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3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진로가 비교적 확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 컴퓨터교육과

(1) 교과영역별 적응도

<표 8-1>은 컴퓨터교육과 재학생의 각 교과영역별 학업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학문관심영역'을 제외한 '교양필수' 및 '계열기초' 등에서 낮은 적응현상을 보이고 있다. 2학년과 3학년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

<표 8-1> 교과영역별 적응도

교과영역	학년	1학년(n=12)		2학년(n=)		3학년(n=)	
		S	\bar{X}	S	\bar{X}	S	\bar{X}
교양필수		0.68	2.96				
계열기초		0.45	2.38				
학문관심		0.89	3.10				
학과전공							
교과교육							
교직과목							

* 2학년과 3학년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되지 않았음.

(2) 교과영역별 실패원인

<표 8-2>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원인	학년	1학년(n=12)	2학년(n=)	3학년(n=)
자신의 지적 능력 부족		1		
자신의 노력부족		2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0		
교수의 능력부족		0		
기 타		0		

* 2학년과 3학년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되지 않았음

<표 8-2>는 컴퓨터교육과 1학년의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를 제시한 결과이다. 학업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지적 능력부족'과 '자신의 노력부족' 등을 들고 있다. 2학년과 3학년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표 8-3>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

반응문항	학년	1학년(n=)		2학년(n=)		3학년(n=)	
		S	\bar{X}	S	\bar{X}	S	\bar{X}
적성이 전공과 일치한다		0.79	2.69				
전공에 점점 깊은 흥미를 느낀다		0.85	2.44				
학과 선택을 잘했다		1.03	2.85				

반응문항	학년	1학년(n=)		2학년(n=)		3학년(n=)	
		S	\bar{X}	S	\bar{X}	S	\bar{X}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0.67	3.11				
학과 운영방식이 마음에 든다		0.94	2.26				
대학생활이 즐겁다		0.86	2.40				

* 2학년과 3학년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되지 않았음

<표 8-3>은 컴퓨터교육과 1학년의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체적인 반응은 부적응에 기울어져 있으나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는 유목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학과 1학년의 경우 '현재 학과에서 계속 공부하겠다'는 유목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유보적인 현상을 보인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감이 타학과 보다는 확고한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6. 요약 및 결론

본 研究의 目的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각 교과영역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부적응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계속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조사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학업적응도 조사 척도는 7개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Likert형 5점척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척도로 측정된 점수는 5점 척도상 일정한 위치를 지시하도록 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판별적 언어는 다음과 같다. 1.00~1.05 : 매우 낮음, 1.06~2.05 : 낮음, 2.06~3.05 : 중위 수준, 3.06~4.05 : 높음, 4.06 이상 매우 높음

제4장에서는 학과별에 따라 각 교과영역별 학업적응도,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및 학과 적응도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과별에 따른 각 교과별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상업교육과 등에서는 교양, 계열 및 학문관심 영역에서 낮은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상급학년에서 안정된 적응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어교육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영역에서 낮은 학업 적응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학교육과 및 과학교육과에서도 학문관심 및 전공 영역 등에서 낮은 적응상태를 보이고 있다. 1, 2, 3학년 공히 모든 학문 영역에서 고른 학업적응도를 보인 학과는 사회교육과이다. 사범대학 내에서 자연과학계열에 가까운 수학교육과 및 과학교육과 등의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들에 비해 더 많은 학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학업 실패경험자수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과별에 따른 각 교과영역별 분석을 기초로 사범대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적응도를 재분석하였다. 사범대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적응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1>부터 <표 6-3>은 전교과의 종합점수를 학년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표 9-1>은 1학년의 각 점수별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95%의 신뢰한계 내에서 추정한 평균치들을 보면 사회교육과와 국민윤리교육과 및 컴퓨터교육과가 중위점수를 넘어 높은 적응도를 보인 반면 나머지 학과들의 경우 낮은 적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9-1> 1학년 학과별 적응도 비교

학 과 \ 통 계	n	S	S \bar{x}	μ (p=.05)
국 어 교 육	16	0.28	0.072	2.629~2.911
영 어 교 육	15	0.25	0.067	2.549~2.810
사 회 교 육	20	0.52	0.120	2.615~3.085
국 민 윤 리 교 육	15	0.36	0.096	2.640~3.020
상 업 교 육	13	0.21	0.061	2.570~2.810
수 학 교 육	13	0.27	0.078	2.260~2.560
과 학 교 육	22	0.44	0.096	2.470~2.850
컴 퓨 터 교 육	12	0.59	0.178	2.430~3.130

<표 9-2>는 2학년의 각 점수별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95%의 신뢰한계 내에서 추정한 평균치들은 1학년 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약 2년간의 학업수행 경력이 학업적응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적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학과들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상업교육과, 과학교육과 등이다.

<표 9-2> 2학년 학과별 적응도 비교

학과 \ 통계	n	S	$S_{\bar{x}}$	$\mu (p=.05)$
국어교육	18	0.36	0.087	3.199~3.541
영어교육	14	0.31	0.086	3.431~3.769
사회교육	19	0.58	0.137	3.411~3.949
국민윤리교육	12	0.46	0.139	2.678~3.222
상업교육	13	0.33	0.095	2.754~3.126
수학교육	7	0.36	0.147	2.632~3.208
과학교육	15	0.43	0.115	2.785~3.235
컴퓨터교육				2.430~3.130

* 컴퓨터교육과 자료 미제출

<표 9-3>는 3학년의 각 점수별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95%의 신뢰한계 내에서 추정한 평균치들은 1, 2학년 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약 3년간의 학업수행 경력이 학업적응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적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학과들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상업교육과, 수학교육과 및 과학교육과 등 전 학과이다.

<표 9-3> 3학년 학과별 적응도 비교

학과 \ 통계	n	S	$S_{\bar{x}}$	$\mu (p=.05)$
국어교육	18	0.36	0.087	3.199~3.541
영어교육	14	0.31	0.086	3.431~3.769
사회교육	19	0.58	0.137	3.411~3.949
국민윤리교육	12	0.46	0.139	2.678~3.222
상업교육	13	0.33	0.095	2.754~3.126
수학교육	7	0.36	0.147	2.632~3.208
과학교육	15	0.43	0.115	2.785~3.235
컴퓨터교육	12			

* 컴퓨터교육과 자료 미제출

1, 2, 3학년을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인 학업적응도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범대학의 각 학과 중 사회교육과를 비롯한 인문·사회계열이 수학교육과를 비롯한 자연과학계열 보다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9-4〉 학업 실패경험자의 학과별 분석

학과 \ 통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교육	4(25.00)	N=16	3(17.65)	N=17	2(11.11)	N=18
영어교육	5(33.33)	N=15	4(23.53)	N=17	2(14.29)	N=14
사회교육	3(15.00)	N=20	2(16.67)	N=12	1(5.26)	N=19
국민윤리교육	3(20.00)	N=15	2(15.38)	N=13	1(8.33)	N=12
상업교육	3(23.08)	N=13	3(20.00)	N=15	2(15.38)	N=13
수학교육	3(23.08)	N=13	4(44.44)	N= 9	3(42.86)	N= 7
과학교육	2(9.90)	N=22	4(25.00)	N=16	3(13.33)	N=15
컴퓨터교육	3(25.00)	N=12				

〈표 9-4〉는 학과별 및 학년별에 따른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1학년에서 실패 경험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영어교육과(33.33%)이며, 가장 낮은 학과는 과학교육과(9.09%)이다. 2학년에서 학업 실패경험자 비율이 높은 학과는 수학교육과(44.44%), 과학교육과(25.00%) 및 영어교육과(23.53%) 등이며, 학업 실패경험이 비교적 낮은 학과는 국민윤리교육과(15.38%), 사회교육과(16.67%) 등이다. 3학년에서 학업 실패경험자가 가장 많은 학과는 수학교육과(42.86%)이며 가장 낮은 학과는 사회교육과(5.26%)이다.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실패경험자 비율이 줄어드는 학과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상업교육과 등이다. 그러나 상급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학업 실패경험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학과는 수학교육과와 과학교육과이다. 이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학습과제에 도전해야 하는 자연과학계열의 학문적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5〉 학년별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실패경험자/학과 재학생	26/126	22/99	13/98
백 분 율	20.63	22.22	13.27

〈표 9-5〉는 학년별에 따라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1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20.63%가 학업 실패경험자이다.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는 2학년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3학년에서 13%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업 실패경험자 분포는 무시할만한 수

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1학년과 2학년의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보상교육이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다.

소속학과에 대한 적응도는 사회교육과를 비롯한 국어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및 과학교육과 등이 자기학과에 대한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학과 적응도는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교육과 및 수학교육과의 경우는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론으로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및 상업교육과는 상급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교과영역에서 적응 능력이 신장하고 있다. 이들 학과 중 사회교육과의 학업적응도는 가장 높은 편이다. 인문·사회의 학과들 중 학업적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학과는 영어교육과이다. 반면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은 상급학년에서도 학업부적응 현상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학이나 과학과목이 고도의 지적 부담을 요구하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업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결손학습 요인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姜善甫外(1988),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7집, 강릉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5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학생생활연구 제8권, 연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 87~95.
- 이수원외(1996) 「심리학」 서울: 정민사, p.125.
- 이종승(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의 한 인과분석', 교육학연구 19권 3호, p.117
- 임규혁(1996),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p. 297.
- 임규혁(1991), '학업성취의 누적적 경험과 정신건강', 교육문제 연구 4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조정기(1989), '창의력과 지능·흥미·학업성적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27권 2호, p. 109
- Bloom, B. S.(1967)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 Y.: McGraw, p. 101.
- Dictionary of Education*, ed. Carter V. Good(1973), 3rd ed., N.Y.: McGraw-Hill Book Co., p. 7.

- Elliot, T. R. ; Godshall, F.; Shroout, J. R.; Witty, T. E. Problem-solving appraisal, self-reported study habits and performance of academically at-ris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90), pp.203~207.
- Gage, N. L. & Berliner, D. C. *Educational Psychology* 3rd ed. (1984, Boston:Houghton Mifflin Co.)
- Ringness, T. A. Affective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and non-successful bright ninth grade boy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3 (1965), pp. 600~606.
- Stringer, L A. & Guildwell, J. C. *Early detection of emotional illness in school children* : Final Report(St. Louis: Miss County Health Department, 1967).